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고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 11월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6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서울 구로, 인천 부평에서도 60~70대 운전자의 차량이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 이처럼 운전 미숙이나 인지 반응 지연으로 인한 고령운전자의 사고는
그 피해 규모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집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약 88%가 페달 오조작, 즉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상당수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협력하여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3개월간 141명의 차량에서 무려 71건의 오조작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다고도 합니다.
- 그러나 현재 정부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계획은 2029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운행 중인 기존 차량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면허 자진반납 제도 역시 지난해 기준 반납률이 약 2%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생계 유지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운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면허 반납 유도 정책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국, 운전이 불가피한 고령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에 본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 가능한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깊은 이해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